국토교통부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: 2026. 9. 15.(화) 11:00 이후(9. 16.(수) 조간) / 배포 : 2026. 9. 15.(화)

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, 민·관 원팀으로 대응한다

- 9월 15일, 자동차 사이버보안 사고대응 민·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
- 국토부·경찰청·현대차, 사고신고부터 종결까지 대응절차 및 기관간 공조체계 점검

□ 운행 중인 **자동차**가 **해킹**되어 핸들 등 **주요 장치**가 **운전자**의 **의도**와 **다르게 작동**하는 상황을 가정한 **민·관 합동훈련**이 실시된다. 정부는 **사고탐지·신고**부터 **확산차단**, **차량복구**와 **재발방지**까지 전 과정을 실제상황처럼 점검해 **자동차 사이버보안 대응역량**을 높일 계획이다.

□ **국토교통부**(장관 김윤덕)는 **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**(KATRI), **한국인터넷진흥원**(KISA), **경찰청**, **현대자동차**와 함께 9월 15일 현대자동차 판교 AVP본부에서 '**자동차 사이버보안 사고대응 민·관 합동 모의훈련**'을 실시한다.

○ 이번 훈련은 **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**(CSMS) 시행 이후, 실제 사고상황에서도 **사고대응 절차**와 **관계기관 간 공조체계**가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**사전점검**하기 위해 마련됐다.

○ 실제 차량이나 시스템을 해킹하지 않고 **가상의 사고상황**을 단계별로 부여한 뒤, **각 기관**이 실제 사고와 동일하게 **신고·보고·조치**를 수행하는 **도상훈련** 방식으로 진행된다.

□ 모의훈련은 **자동차 부품 협력사**의 **서버**가 **해킹**되고, **악성코드**가 숨겨진 소프트웨어가 **무선 업데이트**(OTA)를 통해 차량에 배포돼 **이상작동**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. **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**(SDV)로 전환되면서 사이버 공격의 영향이 개별 차량을 넘어 자동차제작사·부품사 등 **공급망 전반**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시나리오다.

□ 모의훈련 과정은 ① **사고탐지·신고** 및 **확산차단**, ② **원인분석**과 **관계기관 공조**, ③ 차량복구를 위한 **단기조치**, ④ 취약점 해소와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**최종조치**, ⑤ **조치 적정성 확인** 및 **사고 종결** 순으로 진행된다.

○ **현대자동차**의 이상신호 탐지와 사고신고를 시작으로, KATRI의 **기술검토**와 **국토교통부 보고**, KISA의 침해원인 분석, **경찰청**의 해커 추적·수사 등 **관계기관 간 공조체계**를 점검한다.

○ 이후 소프트웨어 **배포 중단**과 개선 소프트웨어 배포를 통한 **차량복구**, 미조치 **차량 추적**, 차량 **방어계층** 및 협력사 **보안 강화** 등 사고확산 차단부터 재발방지·사고종결까지 전 과정을 실제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.

자동차 사이버보안 민·관 합동 모의훈련 개요

□ **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**은 "**자동차 사이버보안 사고**는 일반 사이버보안 사고와 달리 **국민**의 **생명**과 **안전**에 직결된다는 문제가 있다"면서, "최근 AI를 활용한 **자동차제작사 공급망 침투** 등 **사이버공격**이 고도화되고 **빈도**도 증가하는 상황에서, 이번 **민·관 합동훈련**을 계기로 **관계기관 간 역할**과 **공조체계**를 지속 보완하고, **국가안보**와 **국민안전**을 최우선으로 하는 **자동차 사이버보안 환경**을 구축해 나가겠다"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정혁 (044-201-3383)
		담당자	사무관	임채현 (044-201-4146)
			주무관	심정찬 (044-201-3934)
담당 부서	한국교통안전공단 커넥티드카연구처	책임자	본부장	김시우 (031-369-0400)
		담당자	처 장	윤용원 (031-369-0431)
			책임연구원	엄성욱 (031-369-0434)